

보도	2023.12.29.(금) 조건	배포	2023.12.27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690)
		담당자	부국장	김재형	(02-3145-7631)
		담당자	팀 장	장재훈	(02-3145-7641)
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국 장	서재완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박재영	(02-3145-7590)

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

〈 주요 내용 〉

- '23.11.6.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금융감독원이 6개 LP*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, 불법적 공매도 (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공매도)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유동성 공급자(Liquidity Provider, 이하 'LP')의 약자

- 또한,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1 점검 개요

- '23.11.6.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
 -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.
 - * 점검기간 : '23.11.15.~11.28. (10영업일)
- 또한,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.

[1]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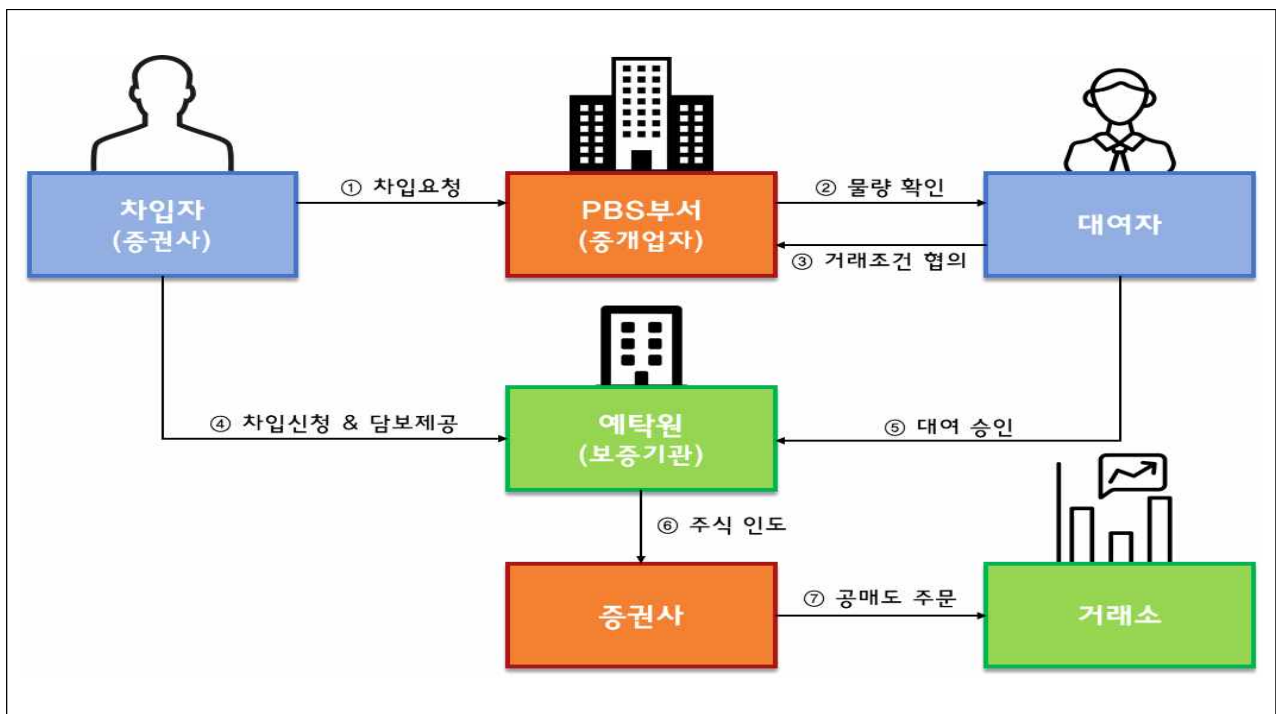
-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*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대여자·차입자가 예탁원 등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하여 주식이 이전된 상태

- (외부대차)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,
- (내부대차)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.

※ 일부 증권사는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거래를 금지

<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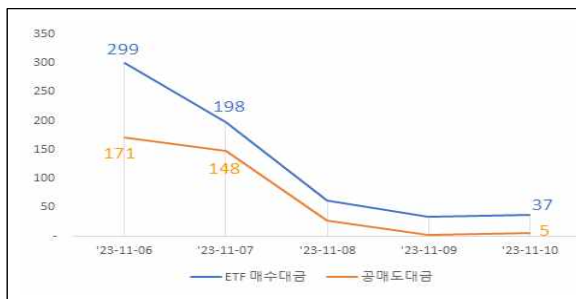
[2]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□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,

- 조사대상 기간('23.11.6.~11.10.)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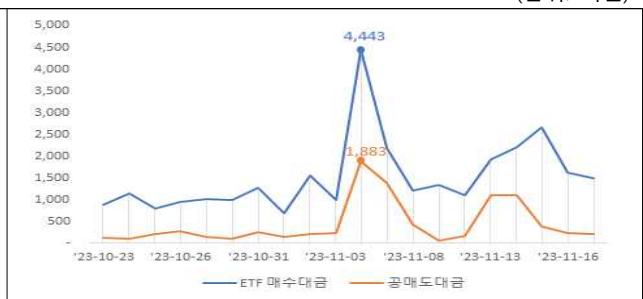
* (예시) 공매도 금지 後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

< 에코프로비엠과 관련 ETF >



< 전체종목과 전체 ETF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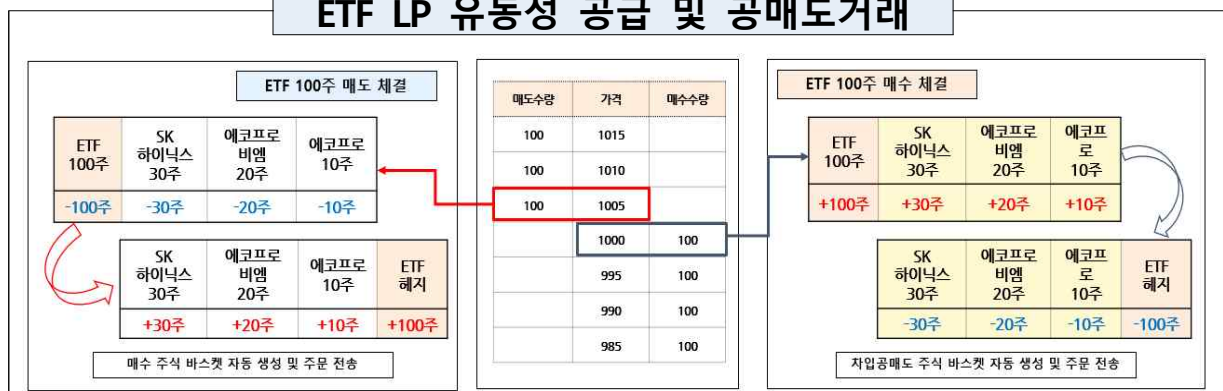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)



□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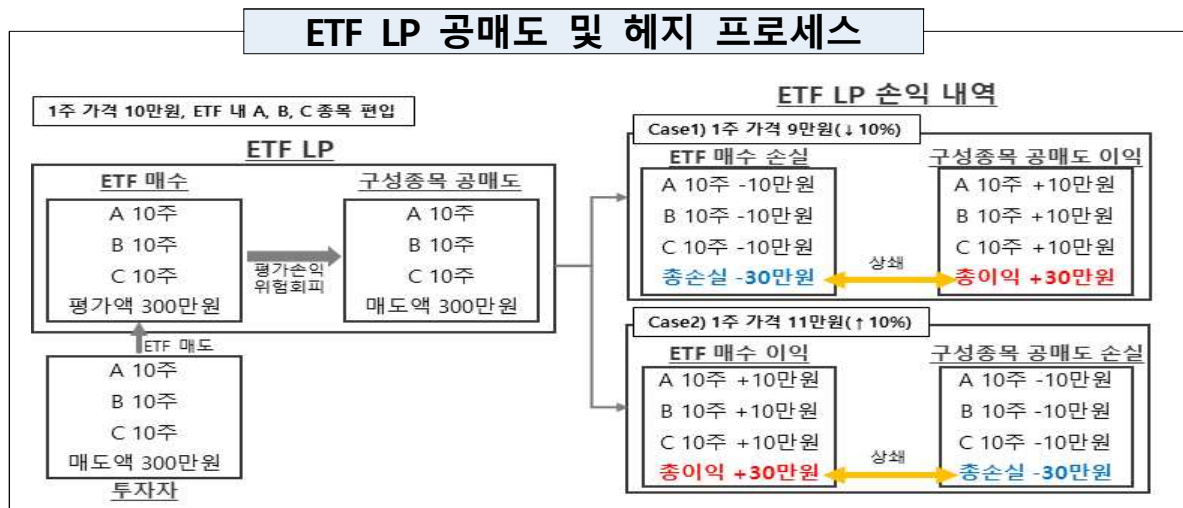
-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.

ETF LP 유동성 공급 및 공매도거래



참 고

- **(LP의 개념)**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
- **(LP의 역할)**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·매도호가를 제공
 - LP는 ETF 공정가치*와 매매호가간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.5~1%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
 - *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(Indicative Net Asset Value) : ETF 구성종목의 가격 합계
- **(LP의 공매도 프로세스)** LP는 ETF의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
 -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* 실시
 - * 반대로 LP가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헤지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



- **(유동성 공급 효과)** LP는 실시간으로 호가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
 - 투자자가 ETF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것을 방지

- (루머 1)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는 왜 증가하는지?
- (루머 2) ○○증권은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인데 금감원이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?

주요 시장 루머

공매도는 금지된 적이 전혀 없다
증시 차입공매도잔고금액 순위

순위	종목명	차입공매도잔고금액(억원)
1	에코프로비엠	11,611
2	LG에너지솔루션	13,960
3	에코프로	11,443
4	포스코퓨처엠	8,178
5	POSCO홀딩스	6,678
6	알칸에프	3,809
7	셀트리온	5,331
8	삼성전자	5,868
9	삼성바이오로직스	3,759
10	H.E.B	2,727

왜 [] 증권을 공공 숨기려 하나?

제목 : [11/24 15:58] "최대주주" 에코프로비엠 회장, 의문스러운 해킹 장내 매도 논란
본문은 주춧돌이다.

에코프로비엠 측은 전날 "한편 보고자할 회계 사실을 바탕으로 결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,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에 따라 이러한 동사는 결산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 이 중 일부는 지분율 10% 이상인 주주인 []로, 30%의 지분으로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.

이 전 회장의 주식거래를 보았을 때, [] 측은 해킹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. 해킹 증권사 한 관계자는 "증권 거래 시스템 내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가 없다"며 "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,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처음 본 사례"라고 말했다.

'최대주주' 에코프로비엠 회장, 의문스러운 해킹 장내 매도 논란
정회원 기자 | 입력 2023.10.24 15:58 | 수정 2023.10.25 04:26

다만, []는 해킹의 주시계와 무관한 증권사 측은 해킹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.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"증권 거래 시스템 내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가 없다"며 "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,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처음 본 사례"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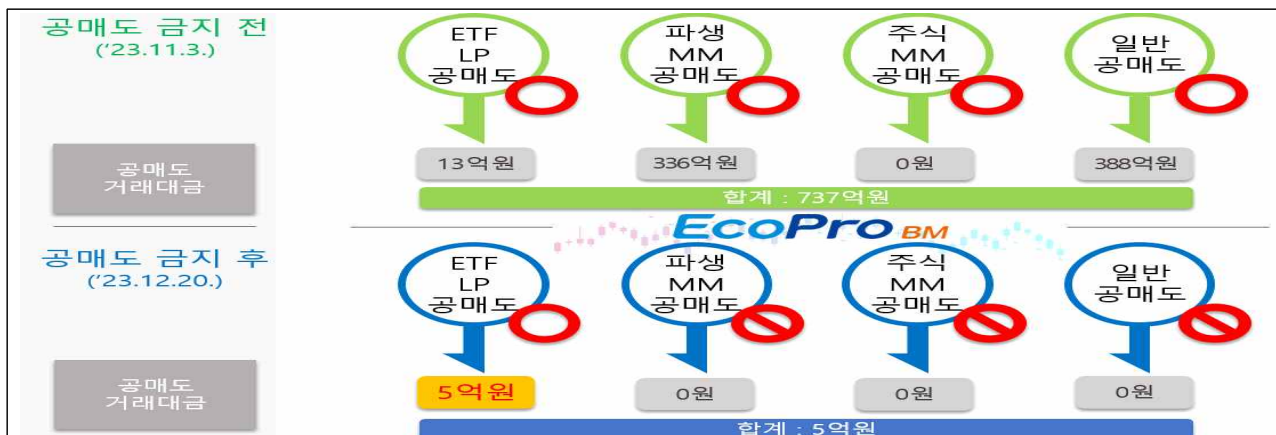
10/25 새벽 4시 데스크에서 [] 삭제함

[1]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.

-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*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,
-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(11.3.)에서 5억원(12.20.)으로 급감(△99.3%)하였습니다.

* 시장 전체 통계는 "금지조치(11.6.) 후 공매도 전체 거래현황" 자료 참조


<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거래량 변동 >



□ 반면,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(11.3.)에서 12.20. 508만주(0.7% ↑)로 증가하였습니다.

- 이는 공매도 잔고가 「차입주식수 - 보유주식수」로 산정되는데,
-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,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〈 공매도 잔고 산정 예시 〉

차입주식수 150주 - 보유주식수 100주 = 공매도 잔고 50주		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(보유주식 50주 매도) </div>		
차입주식수 150주 - 보유주식수 50주 = 공매도 잔고 100주		
(차입주식수 : 변동없음)	(보유주식수 : 50주 ↓)	(공매도 잔고 : 50주 ↑)

※ 금지조치(11.6.) 후 공매도 전체 거래현황

-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% 이상 급감하였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

공매도 금지조치 전후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 비교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공매도 금지 전* (9.13.~11.3.)				공매도 금지 후* (11.6.~12.20.)				증감
	일반	MM	ETF	LP	일반	MM	ETF	LP	
코스피	4,517	681	162	5,360	-	-	235	235	△5,125 (△95.6%)
코스닥	1,999	349	53	2,401	-	-	224	224	△2,177 (△90.7%)

* 공매도 금지 전후 33일간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

공매도 금지조치 전후 일평균 공매도 잔고 비교

(단위 : 억원)

구분	공매도 금지 전* (9.13.~11.3.)	공매도 금지 후* (11.6.~12.20.)	증감
코스피	121,631	99,820	△21,811 (△17.9%)
코스닥	63,219	57,609	△5,610 (△8.9%)

* 공매도 금지 전후 33일간 일평균 잔고를 비교

[2] ○○증권이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(루머 ①) ○○증권이 SK하이닉스(코스피) 80만주 및 애니젠*(코스닥)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

* 애니젠은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이 아니어서 LP 외 투자자의 공매도 불가능

→ (확인내용) SK하이닉스의 '23.11.8.(의혹일)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.5만주(○○증권 창구 물량 無)에 불과하고, 애니젠에 대한 '23.10.12.(의혹일)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습니다.

※ 한편, '23.11.8. 당일 ○○증권 창구를 통해 나온 SK하이닉스의 매수수량은 80.7만주로 이 수치가 거꾸로 곡해되었을 가능성

- (루머 ②) ○○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

→ (확인내용) 의혹 제기(11.14) 전 60일간 에코프로 매도 물량은 □□증권(35.4%)이 가장 많고, △△증권(17.8%)・○○증권(17.1%) 順으로 출회되어

- ○○증권의 공매도 주문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또한, 공매도 금지 前 ○○증권 창구를 통한 공매도 주문 대부분은 위탁매매 물량(87%, 13% 주문만 ○○증권 자기매매)이었습니다.

- (루머 ③) '23.10.16.~10.19. 기간 중 발생한 에코프로 前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(2,995주, 약 25억원)는 ○○증권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

→ (확인내용) 불상자가 前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前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*였습니다.

* 前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음

- ☐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